

후로렌스 · 나이팅게일

생신 150주년을 추모하면서

대한간호협회 회장 홍 신 영

1970년은 후로렌스 나이팅게일 출생 150주년에 해당되는 해이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제 간호협회에서는 나이팅게일 150주년 기념 우표를 발행했고 우리 나라에서도 대한 간호학생회 주최로 열렸던 나이팅게일 15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시하여 지방 각 간호학교에서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그를 추모하는 기념행사를 가졌었다.

나이팅게일은 1820년 5월 12일 이태리(Italy) 후르렌스(Florence) 교외 빌라 클림비아에서 나고, 1910년 8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19세기 초엽, 영국 명문에서 호화롭고 안일하게만 태어났던 그가 신에 대한 경의와 인간에 대한 희생 봉사들 숭언하여 하르트, 사랑의 실천의 산 모범이 되었으며 그는 영국의 나이팅게일에서 세계의 나이팅게일로서 그의 이름은 너무나 세계에 잘 알려져서 19세기에 살아 있었던 인물 중에 가장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었다고 한다. 그가 우리에게 끼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어서 인간 사회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 생활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그는 현대 간호학의 상징이요, 여성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시대에 그것을 일반에게 인식시켰고 간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천시되었던 것을 개선하여 그의 평생에 많은 여성들이 간호학교에 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의 수고로 군대의 모든 조건이 개선되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그토 하여금 19세기에 제 일인자로 인정을 받을만하다.

우리는 이제 한세기 반전에 나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남겨 놓아, 온 세계에 희생 봉사의 산 표본이 된 나이팅게일을 추모하고 자기 소신껏

간호업무를 실시한 백절불굴의 신념과 용기를 본받아 오늘날 회미해만 가는 희생 봉사에 대한 그릇된 해석을 일소하고 문자 그대로 사랑의 화신이 되어 고통과 질병에서 허덕이는 인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마지 않는다.

19세기 초엽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으킨 국제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대규모의 많은 공장들이 세워지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상이 발달되고 정신면에 있어서는 세력의 부흥과 새로운 지식의 사조가 전개되어 일상생활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 까지도 전문적 여성직업에 대한 터전은 마련 되어 있지 않았고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에 나이팅게일은 재력과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영국의 명문 윌리엄 에드워드 나이팅게일(William Edward Nightingale)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부잣집 딸로 쾌활하고 명랑하며 용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생활의 규모와 예절과 전통을 매우 중히 생각하는 전형적인 영국 부인으로 일평생 소모감에 불타는 들체 딸의 가혹하고 깊은 마음을 알아 주지 못했고 그의 아버지는 들에 박힌 영국 신사로서 특히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컸다. 그는 일찍 부터 딸들에게 고전학, 어학, 역사, 수학 등을 가르쳤으며 후로렌스는 아버지와 선거법 개정이나 노예금지법, 이태리 혁명운동에 대한 토론을 했다.

나이팅게일은 부요하고 안락하기만 한, 어느 젊은 여성이나 다 즐겼던 영국 귀족사회의 생활을 즐겼을 수 있었지만 그는 어려서 부터 평범하고

안락하기만 한 귀족생활을 즐겨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새 이와 같이 화려한 생활은 무가치하다는 것을 속 마음에 깨닫고 무엇이나 보람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나이팅게일 일가는 열렬한 기독교 신자 가정이었다. 그는 부모님을 따라 자주 교회에 나갔었다. 후르웬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게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었다. “너는 방황해서는 안된다. 너는 여성 해방의 선구자가 되어서 우선 간호법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두려워 할 것 없다. 네 길에는 항상 내가 있는 것이다.” 후르웬스는 이로써 “하나님은 그의 사업에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뻐했다. 그는 이르기 어려운 목적을 위해서는 사랑, 결혼, 우정을 포기했다. 후르웬스는 자기가 값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든 간호원이 되어야만 된다는 신념으로 공중위생에 대한 공부들 시작하기로 했다.

부모님의 반대와 언니의 반대는 극심했다. 그의 부모는 작은 딸의 우울함과 간호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번 구타와 여행을 시켰다. 이런 여행을 통하여 부모님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후르웬스의 마음은 더욱 굳어만 갔다. 그는 여행을 하면서도 아름다운 경치보다는 교회에 부속된 여자학교나 고아원에 흥미가 있었고 자선 사업을 전학하며 고아원의 조직, 경영방법을 연구했다. 그들이 로마에 들렀을 때 영국에서 온 많은 신사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 그 중에 후르웬스의 생애에 큰 의의를 가지게 했던 시드니 하아버트(Sydney Harbert)를 여기서 만났다. 그는 전 영국 육군 대신을 한 적이 있으며 15년간이나 국회의원으로 활약한 사람이다. 이들은 병원의 청결문제와 제도문제 등을 토의했다. 그 후 후르웬스는 애급과 회랍, 특일 등을 여행하는 동안 여기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아 왔다. 좋고 큰 전물을 보면 이것들을 병원으로 만들고 밤마다 침대를 많이 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그는 병원에 대한 “Notes of Hospital”이란 책을 이 때에 저술했고 그는 1851년 처음으로

자선 부인회에서 경영하는 양로원에 가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에 후르웬스의 아버지는 딸이 된다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후원하기로 생각하여 1년에 500파운드 씩 보내주기로 했다. 그 때 사람들은 의혹을 품었다. 저렇게 호화로운 환경에서 자란 사교계의 귀부인이 어떻게 간호원이 될 수가 있겠는가?

또 숙녀가 아닌 천한 여자들을 어떻게 간호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의문을 던져 주었으나 후르웬스는 이러한 의심을 실천 하므로써 증명하여 주었다.

그는 자비와 봉사로써 남을 도와 주는 선구자 역을 하였던 것이다. 그는 또한 그 때부터 간호 제도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시작했다. 충분한 재로 없이는 간호계획에 만전을 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또한 많은 위생과 의학에 대한 책들을 읽었다. 그는 1853년 9월 런던에 있는 부인병원의 원장겸 간호원장으로 부임하여 그의 천부인 간호 행정력을 발휘했다.

1854년 3월 간호사업의 기반이 채 잡히기도 전에 크림리아 전쟁(Crimean War)이 발생했다. 이 전쟁은 흑해(Black Sea)의 뱌익문제를 둘러싸고 터키(Turkey)로 뻗으려는 러시아(Russia)의 세력을 막기 위해 영국(England)과 불란서(France)는 동맹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러시아에 개전하므로 발생했던 것이다. 이 전쟁에서 동맹군의 궤세는 유리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은 수의 부상자들을 내게 되었다.

한편 불란서는 자선 간호원단이 있어서 부상자들을 간호했으나 영국은 이에 대응할 만큼 간호원이 없었기 때문에 간호의 소홀함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수는 날로 늘어만 갔다. 이 소식이 영국 내에 전해지자 국민들은 대단히 비판적이며 흥분하여 원성이 높아 갔다.

그 당시 육군 대신인 시드니 하버(Sydney Harbert)는 이 난국을 타개할 이는 오직 나이팅게일 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오래 사귀는 동안 친구로써 서로의 생각과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는 곧 나이팅게일에게 도와 달라는 간곡한 편지를 보냈다. 나이팅게일은 이미 전지로 나가서 일할 의사를 표명했던 차라 쾌히

승락하고 1954년 10월 24일 40명의 간호원을 인솔하고 전지로 떠났다. 인솔한 간호원 중에는 카톨릭 간호원과 영국교 간호원(Anglican), 그리고 성 요한관 간호원들이 포함 되었었고 나머지는 그다지 숙련하지 못한 간호원들이었다. 그의 일행이 목적지인 스크타리(Scutari)에 도착한 것은 그해 11월 4일 이었다. 도착한 그때의 상태는 참혹했다. 수십리나 되게 길게 지은 바락크 병원(Barrack Hospital)에는 침대와 비품이 전연 없이 부상병들은 땅 바닥에 피 들은 옷을 그냥 입고 누워 있었다.

나이팅게일은 이 처참한 광경을 보고 이대로는 도저히 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막사를 깨끗이 청소하고 피 들은 옷을 세탁하게 했다. 병사들의 식사와 보급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은익했던 군대 물자를 꺼내서 이용했다. 그는 막대한 사재를 갖다가 썼으며 친지들에게 도와달라는 편지를 내었다. 그가 인솔하고 간 40명 간호원에게는 엄한 규칙으로 그들을 지도했고 환자 치료에 관심이 많은 의사에게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고 부상자들을 일일이 돌보았다. 병사들은 “이제 우리는 천국에 온 것 같다.” 고 했다. 영국 여왕은 병사들의 수당 범규를 개편하도록 했고 의사들도 전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나이팅게일은 그들의 지휘관이 되었고 하버트 장군의 자문관이 되었다. 그는 낱새나는 막사 병실에서 일하면서 끊임 없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었다.

한편 계속해 오는 방문객과 문병객, 신문기자들을 대우하며 산같이 쌓인 서류와 보고서, 그리고 수 없이 많이 써야 할 편지를 그는 쉴 사이 없이(하루에 20시간 이상) 일했다. 또한 그는 밤이면 등불을 들고 침대 사이로 다니면서 부상병들을 돌보았다. 그래서 그는 등불을 든 여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크림미아의 천사라는 별명을 들으면서도 한편 예리한 판단과 박력있는 실행으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해 나갔다. 그 때에 돈과 권력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는 나이팅게일이었다. 그의 희생적인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의욕의 결실로 이루어져 나가는 개선의 모습을 보고 병사들은 큰 존경을 보냈다. 그는

또한 군인들의 휴제소를 설치하고 군인가족 돕기운동을 벌였으며 심지어는 군인의 우전제도와 저급제도까지 실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나이팅게일에게 전 영국군 간호원 총 감독을 임명했다. 군대의 간호원들은 나이팅게일의 허가 없이는 임의로 전속을 못 다녔다. 전쟁은 끝났다. 승리와 더불어 나이팅게일은 1854년 7월에 맨 마지막 일행과 같이 조용히 귀국했다.

그 외에도 나이팅게일의 간호교육과 간호업무에 대한 업적은 수 없이 많고 또 국가에서나 사회에서 표창도 많이 받았다. 이것은 지면 관계로 다 실리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그의 일생을 되돌아 볼 때 후르렌스의 생애는 고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반면에 그는 단축했던 것이다. 그의 말년에는 많은 종교인, 국왕, 왕족, 친척들이 방문했으며 행복스러운 노년기를 보냈다.

후르렌스는 유창한 세 나라 말(Greece, Latin, Rumanian)을 했으며 수학적 두뇌와 독일의 철학적 이념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는 여자들에게 의사가 되라고 권하지도 않았고 또 절대로 자기가 의사가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누구든지 병원에 입원해 본 경험이 있는 이는 그의 실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의 교훈의 몇 구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배운다는 것은 풀이 없다. 훌륭한 간호원은 날마다 무엇인가 배운다. 모든 일에 경험이 쌓인다. 훌륭한 간호원은 좋은 여성이 아니고는 안된다. 환자에게는 종교적 동정과 어머니와 같은 관심을 가질 것, 그리고 병실 관리는 완전히 다할 것, 질투와 증상은 남을 해할 뿐이다. 책임 있는 자는 권위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말이 없으면서도 힘이 있고 웅대하고 공평하여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성경말씀과 같았다. 이제 우리는 그의 생애와 그의 교훈을 더듬어 보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그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더 접근하기 위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하겠다.